

공영쇼핑, 사옥건립 재추진... 후보지 백지화 원점 재검토

사옥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지난해 흑자 전환, 기대감 ↑
노조 등 구성원 동의의 관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공영쇼핑이 단독 사옥 마련을 위한 위원회를 꾸림에 따라 향후 거처가 어디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2015년 7월 개국 후 원년을 포함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 지난해 흑자로 처음 돌아서고, 순이익 규모도 당초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250억원 가량에 달하며 새 집 마련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영쇼핑은 현재 서울 상암동 디지털큐브 건물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7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전날 상암동 본사에서 '공영쇼핑 전용사옥 건립 추진위원회'를 본격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위에는 건축분야 등 외부 전문가 8명에, 내부 3명을 더해 총 11명으로 꾸렸다. 내부 3명에는 이사회 추천 2인, 직원대표 1명이 포함됐다.

또 위원장은 내·외부 공동위원장 체제로 김봉안 사외이사와 김창성 협성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위원회를 함께 맡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공영쇼핑박진상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용사옥 마련"이라는 꿈이라도 있어야 (구성원 전체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유치를 위한) 오퍼도 있었지만 이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로부터도 추가 제안을 받아 추진위원회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하게 판단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용사옥건립추진위는 전용사옥 기본 구상, 대상 부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사옥 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후보 대상지 입지 및 여건, 비

용, 위험요인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직무대행은 "지금부터 진행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10년도 더 걸리지 않겠느냐"며 "전용사옥 건립은 공영쇼핑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축수산인의 판로를 탄탄하게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공영쇼핑은 7개 TV홈쇼핑 중에서 유일하게 사옥이 없다. 이에 따라 정전 등으로 인한 방송 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실제로 2019년 4월 당시 정전으로 인해 생방송 도중 약 1시간 동안 방송이 중단되는 등 이들 사이에 두 차례나 방송사고가 났었다.

이에 따라 당시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단독 사옥 건립 필요성을 역설하고 '신사옥 건립 TF'를 꾸려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도 했다.

경기 군포시는 이같은 소식을 듣고 공영쇼핑 본사 유치를 위해 러브콜도 보냈다. 공영쇼핑이 군포시에 올 경우 부지 마련과 각종 인허가 관련한 행정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이를 위해 공영쇼핑과 투자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도 따로 맺었다.

공영쇼핑은 이후에도 군포를 포함해 경기 일산, 김포, 서울 사당 등을 놓고 후보지를 물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새로 발족시키면서 원점에서 다시 사옥 건립을 추진하되 절차도 더욱 투명하게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옥 이전을 추진하면서 노조 등 구성원들의 동의가 관건이다. 경제성 등만을 감안해 현재 본사가 있는 상암동과 거리가 먼 곳으로 새 집을 옮길 경우 출·퇴근 문제로 인해 혼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원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영쇼핑은 임기를 남겨놓고 지난 1월 사임한 최창희 대표 후임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공모 절차를 진행했지만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시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진공 중소 해외진출 추가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1년 해외지사화사업 온라인매칭상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지사화사업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들은 진출 희망국가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수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해외진출 단계별로 총 37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매칭 상담회에는 전세계 35개국의 해외민간네트워크 123개사와 수출 희망 중소기업 145개사가 참여했다.

참가기업은 온라인으로 해외민간네트워크와 1대1 상담매칭을 진행해 향후 1년간 진행될 사업의 파트너를 찾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친환경 'ECO+유니폼' 현장 도입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통해 제작
이산화탄소 1680kg 감축 효과

CJ대한통운이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ECO+ 유니폼'을 현장에 도입하며 ESG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 물류 현장 조성에 나선다.

CJ대한통운은 7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통해 제작한 친환경 'ECO+ 유니폼' 2000벌을 현장 직원들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ECO+ 유니폼'은 생수 및 음료 등의 용기로 쓰이는 500ml 페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의류다. 민간 기업에서 업사이클링 의류를 실제 현장 유니폼으로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CO+ 유니폼' 1벌에 들어가는 페



CJ대한통운 직원이 ECO+ 유니폼을 입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

페트병은 약 14개로, 이번에 보급하는 유니폼 2000벌에는 페페트병 총 2만 8000개가 들어갔다. 페트병 1개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약 60g이다. 2만8000개의 페페트병이 CJ대한통

운 'ECO+ 유니폼' 2000벌로 재탄생되며 이산화탄소 1680kg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산화탄소 1680kg은 소나무 560그루가 1년 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ECO+ 유니폼'은 탄소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까지 적용해 실용성을 더했다.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조끼 디자인에 봄가을에도 입을 수 있도록 안감을 추가했으며, 사용편의성을 고려해 지퍼 형태의 주머니와 펜꽂이를 추가하는 등 수납 기능을 강화했다.

유니폼 앞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상징하는 안전지킴이 인증마크와 'UN SDGs 협회' 마크를 담아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딜리버리' 이미지를 표현했다.

/김승호 기자



웰스 모션베드 신제품.

웰스 5분절 '모션베드' 출시

교원그룹 웰스(Wells)가 모션베드를 출시하며 매트리스 라인업을 강화한다.

7일 웰스에 따르면 '웰스 모션베드' 신제품은 독일 OKIN사 모터를 이용한 5분절 모션 프레임과 전용 폼매트리스로 수면 및 생활 패턴에 따라 꼭맞춘 듯한 편안함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4가지 자세를 원터치 모드에 담아 손쉽게 조절할 수 있고, 상체와 하체 높낮이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원터치 모드는 척추 압력을 최소화해 편안한 휴식을 주는 'ZG모드', 목과 허리의 부담을 줄여 TV시청이나 독서 활동 등에 맞춤형 'TV모드', 안락함을 주는 '라운지모드', 원하는 자세를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모드'로 구성됐다.

매트리스는 5개 레이어로 구성된 웰스 모션베드 전용 폼매트리스를 사용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우리銀, 뉴딜기업 추가 금융지원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3년간 약 4000억 규모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한국판 뉴딜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

약'을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보와 우리은행이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 뉴딜사업 영위 기업에 대한 우대금융을 지원하고,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총 55억원

규모의 특별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기보에 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바탕으로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지원(0.3%p) ▲보증료 감면(0.2%p↓)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해 향후 3년간 약 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

원체계를 수립하고 비대면·디지털기업 우대보증, 녹색보증, 안전인프라보증,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번 국민은행과의 뉴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이어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반사회주의 맹렬 투쟁"... 내·외부 결속 강화하는 북한 / 사진 뉴스스
▲ 선관위, 투표참여 문구 중립성 논란에 "선거법 개정 희망"

▲ 전북 간 정 총리 "고향 오니 참 좋아... 국제 금융도시 꿈 뒷받침"
▲ 경찰 "투기 의혹 靑경호처 직원 압수수색 자료 분석중"



▲ 日스가, 北도교올림픽 불참에 "일방적 발표"... 입장 변화 기대도 / 사진 뉴스스
▲ 美국무부, '베이징올림픽 공동 보이콧 검토' 대변인 발언 진화... "논의 無"